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07호 2006년 7월 16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평화의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좋은 일이 뜻대로 잘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을 지니고 있는지를 본인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받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할 때 그가 보여 주는 그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이상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영적권고 13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 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골로 1,9b-11

성 보나벤투라 축일

7월 15일

전능하신 하느님, 성 보나벤투라 주교의 천상 탄일을 기념하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그의 높은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그의 뜨거운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 ”

사랑의 완성. 회칙은 회원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회칙2조). 곧 거룩하게 되는 것, 완덕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는 교회의 모든 단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여기에 이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교회가 인가한 회칙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는 특색을 갖는다.

성 프란치스코처럼. 회원들의 영적 아버지요 모범이 되시는 분은 주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따라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다(회칙1조). 교황 비오 9세는 “어느 누구도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과 복음적 생활 양식을 잘 본받고 빛낸 분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가난과 형제애 등 여러 가지 뛰어난 영적 은사를 받았다. 따라서 회원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성 프란치스코의 길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고자 한다.

회칙 서약. 일정한 교육기간이 지나면 회원들은 교회가 승인한 회칙을 지키면 살겠다는 서약을 한다. 현 회칙은 1221년, 1289년, 1883년에 이어 네 번째 개정된 회칙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2년 동안 준비해 왔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1978년에 인가해 주셨다. 성 프란치스코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머리말로 담고 총 3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신원을 밝히고, 복음을 따라 산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현대에 맞추어 요약한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특히 사도적 생활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형제회 생활을 규정해 주고 있다. 서약은 세례성사의 특별한 쇄신이며 복음적 생활을 살기로 약속하는 자기 봉헌이고 교회의 행위이며 그 성격상 영원한 것이다(회칙23조)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은 사랑이시오며 자비이시나이다.” 성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권하는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때, 성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한 정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간청할 때 사부님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느님의 존재와 계획이 드러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의 신심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분위기, 영성의 특징, 형제회의 첫째가는 법은 사랑이고, 작은 형제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다. 하느님에 뜻을 따르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이하여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키는 “신심의 정신”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선을 내려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리게 해준다:

“세속을 떠난 우리에게 지금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보상이나 업적이나 이익을 얻을 핑계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주님한테서 떨어지게 하거나 떼어놓지 않도록 힘써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몸과 마음과 생명을 모두 다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주 하느님을,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속량하셨고 온전히 당신 자비로써 구원하실 주 하느님을, 불쌍하고 비참하며 부패되고 추악하며 배은망덕하고 악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고 또한 주고 계시는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마르 12,30) ‘지혜를 다하고’(마르 12,33) 능력을 다하고 정력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을 다하고 애를 다하고 소망과 뜻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는 사랑의 초대에 민감하여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마치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의 활이 마음 안에 있는 현을 켜는 듯이 곧 자극을 받아 꿈틀거렸으며 불이 붙었다. 그리고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사랑해야 합니다”하고 말하곤 하였다. 이같은 사랑의 열정은 그의 신심,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친교, 마리아에 대한 신심, 인간들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그의 형제적 태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청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표현을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였다.

‘세 동료들의 전기’는 성인을 “하느님의 사랑에도취된 사람”이라고 부른다. 단테는 그를 “사랑에 불타는 세라핌적 사람”이라고 부른다. 세계 문학이 성 프란치스코에 붙인 이름은 “세라핌적 사부”인데, “세라핌적”이라는 형용사는 “프란치스코”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성 보나벤투라로 말미암아 “사랑”은 신심과 관상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으뜸을 차지하게 되었다.

영적 친구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쉽게 사랑에 빠진다. 성인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그들은 서로 친분을 맺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성 보나벤투라는 유명한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토마스 데 아퀴노와 친분이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어린 꼬마였던 보나벤투라의 병을 고쳐 준 적이 있었고,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프랑스 파리에 있던 대학에서 공부할 때 사귀 친구였다. 두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동시에 받기도 하였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는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데 아퀴노가 신앙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적인 친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친구였다. 영적인 친구와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면 큰 위로를 받는다. 영적인 친구들은 시련이 올 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의혹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격려해 준다. 그들은 우리 삶을 밝게 해주며, 영적 성숙의 길에 동행해 준다. 나에게 영적인 친구가 있는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서약을 준비하며...

만세 삼창은 너무도 기쁠때 하던가...
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를 한 후
감사 3창을 드린다.
어떤일이 있었던 하루였던, 하루동안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3창...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도 많지만
둘러보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도
많음을 ...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의
생활을 바탕으로 형제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리잡고 살아가야 하는 행복함에
가장 감사를 드리며..
우리 형제회는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라고
생각한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는 사막 한 가운데서
찾아다니던 오아시스에 와 있는 우리들
그리고 나...
그 오아시스에 오랫동안 머물러 그곳이
파라다이스임을 잊지 않고 평생동안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굳게 믿으며 ...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불리워 주신 아름다운
형제회 안에서 평화와 선을 마음속에 지니며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갈수 있도록 오아시스
한 가운데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때까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깊이 기도드려 본다.

서약을 준비하며

유기서약자 남효선 정정혜 엘리자벳



가슴으로 느껴라

- 헬렌 켈러 -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말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쾌락은 거의 없다.
불구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오늘 보나벤투라 형제회에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찬 가운데 서약과 입회를 하는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입회: 광종무 토마스 아퀴나스,
이계숙 가브리엘라, 남석현 야고버
유기서약: 김영자 켄마, 강수연 마리아,
박용순 세실리아, 남효선 엘리사벳
종신서약: 김미경 마리아

- + 오늘 보나벤투라회 2차 서약식 미사를 집전해 주시는 김안티모 신부님과 이요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 7월 30일 1시 성 정 바오로 성당에서 평의회가 있겠으며 곧바로 신부님을 모시고 2:30부터 양성 워크샵이 있겠습니다. 양성과 양성 보조를 하셨던 분이나 또 이번에 양성/보조를 하시는 분은 오후 2:30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 이번 서약식때 친교를 담당해 주신 광로사 자매님을 비롯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7월8일 서약피정이 안티모 신부님을 모시고 한테레사 자매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 +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성소가 있어 보나벤투라회에 지원하실 분들을 오는 8월20일에 시작하는 월례회 양성반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 + 박용순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한국 방문중 테이블 다미아노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지구형제회 피정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10월 13-15일(금-일)에 있겠습니다.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8월 6일까지 선금 \$50과 함께 서기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이번에 입회/유기/서약 하시는 분들을 위해 ...
- + 우리 형제회에 새로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회의 설립을 위해 ...
- +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7월 서약식 시간표

1:30 PM - 서약식/미사/리셉션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2번 태양의 찬가
봉헌: 34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52번 주님 부르면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강영순 스텔라 7월 19일

간식담당

8월: 김아가다, 조로사, 지요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